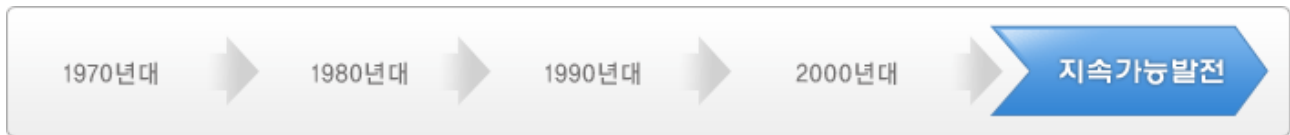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의 생성과 전개



### 1970년대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UNCHE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유엔인간환경선언’ 및 인간 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세계환경의 날’ 지정 및 유엔환경기구(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창설을 권고하는 등 27조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최초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바라 워드(Barbara Ward) 여사가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라고 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회의

- IUCN은 세계의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에 결성된 국제기관입니다. 이 연맹은 1973년 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수질·토양·천연자원 및 생물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1980년 회의에서는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전전략에서는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 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계보전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지원체계의 보전 등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1980년대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정립>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

- UNEP는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자 1972년 국제연합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관련 종합조정기관입니다. 1982년, UNEP는 UNCHE의 10주년 기념행사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이 채택되었고,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나이로비 선언’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 평가됩니다.

####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UNEP의 결의로 설치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개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정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우리 공동의 미래」는 대중적인 빈곤, 인구성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을 우리 인류 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WCED의 위원장을 맡았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 여사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 1990년대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공론화>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는 114개국 국가정상을 비롯한 3만여 명의 환경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대표가 참여한 UNCED가 개최되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환경회의로 평가되며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지구환경회담입니다.

- 이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원칙 성명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범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하였습니다.

- 이 회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편, 이 회의는 각국의 의제21 추진상황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2년 12월, 4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에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2000년대 - “지속가능발전” 개념, 포괄적 의미로 확대발전>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는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한 회의입니다. WSSD는 “인간, 지구, 번영(People, Planet & Prosperity)”을 주제로 채택하여 기존 환경보호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도 사회통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었습니다.

- WSSD에서는 세계정상들의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및 비정부 파트너들 간의 파트너십 Initiative Proposal을 채택하고 정치적 실행으로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각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